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포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행 인: 이 중 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1996년도 찬양대원 임명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I, II, III부 예배와 찬양예배, 13일(수) I, II부 예배 시

오늘 I, II, III부 예배와 찬양예배, 13일(수) I, II부 예배 시에 1996년도에 봉사할 찬양대원을 임명한다.

찬양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에 모범을 보이며 온 교회와 목회에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여섯 개의 찬양대가 구성되어 있어서 주일 I, II,

III부 예배와 주일 저녁의 찬양예배, 수요 I, II부 예배를 돕고 있다. 특별히 찬양예배를 담당할 베들레헴 찬양대는 남성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 I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할 호산나 찬양대는 여성찬양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찬양대는 찬양대원 임명식을 마친 오늘부터 각 찬양대별로 총회를 갖고 찬양대의 질적 성숙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1996년도 찬양위원회

· 찬양위원회 지도 / 김명현 목사 · 찬양위원장 / 홍정호 장로

찬양대	대장	부대장	지휘	오르간	피아노
가브리엘 찬양대	노문환	노송성	허희철	안진희	안선영
할렐루야 찬양대	김광신	이태상	박정선	조은주	정은영
임마누엘 찬양대	홍정호	백수남	(미정)	(미정)	한현숙
베들레헴 찬양대	이영기	이제원	임훈규	유혜련	-
호산나 찬양대	김윤자	김상옥	서희숙	홍혜란	-
시온 찬양대	김중수	김형택	허희철	이주은	-

■ 남은 연말 연시 행사들

- 교회학교교사 임명식 / 17일(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 성탄축하 찬양예배 / 17일(주일) 찬양예배(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 성탄축하 찬양예배 / 24일(주일) 찬양예배(찬양: 교회학교 찬양대)
- 성탄절 새벽예배 / 25일(월) 새벽 5시
- 성탄절 예배 / 25일(월) 오전 11시
- 교회학교 졸업식 / 31일(주일) 교회학교별로
- 송구영신예배 / 1995년 1월 1일(주일) 0시
- 순결서약식 / 1995년 1월 7일(주일) 찬양예배 시



찬양 가득한 성탄절

다음 주일에는 <메시아> 찬양으로 축하예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는 올해의 성탄절을 찬양으로 맞이한다.

다음 주일(17일) 찬양예배 시에는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김광신 장로, 지휘: 박정선 집사, 오르간: 조은주 집사, 피아노: 정은영 선생) 주관으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연주한다. 수개월간 기도와 연습으로 준비해 온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 예수님의 강림, 수난, 영광의 의미를 묵상하고 성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정의 손길을 펴는 등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일년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던 100교회에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특별한 안부를 묻고 선물을 보내는 등 따뜻한 이야기들이 늘어 가고 있다.

★ 25일(월) 성탄축하예배는 오전11시에

우리 교회는 24일이 주일인 관계로 성탄절 야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성탄절 새벽 예배는 성탄절인 25일(월) 새벽 5시에 드리며, 성탄 축하예배는 25일(월) 오전 11시에 전가족이 함께 드리게 된다.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천사들은 고요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라고 찬양했고 시므온은 “영원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라 노래했다. 지금은 세상의 분요함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그 감격과 영광은 변함이 없을 수 없다. 성탄의 의의를 밝히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성탄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12개 교회학교 부장 및 부감 발표

교육목표에 따라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교회 12개 교회학교는 1996년도 부장 및 남·여 부감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각 교회학교 부장과 남·여 부감은 다음 주일에 있을 교사 임명식을 앞두고 내년도에 봉사할 교사를 확정하며 지도 교역자와 함께 내년도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교회학교	부장	부감(남)	부감(여)
탁아부	이영기	서춘식	이남복
유치부	이재권	권영복	이성애
유년부	최종시	허찬우	현경옥
초등부	나희주	신용식	최운정
중등부	박철훈	임상현	이정자
고등부	정병무	안의경	김정희
대학부	노문환	김세재	이영희
청년부	김광신	하영수	주경자
장년부	김대호	서문석	김중복
소망부	김태기	박두영	(미정)
사랑부	윤봉준	왕경래	전인화
새가족부	오정수	김영준	원복순

24일(주일) 찬양예배 시 교회학교 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축하 잔치가 열린다.

이밖에도 각 교회학교는 잊지 못할 1995년도 성탄절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새벽송, 문학의 밤 등 풍성한 축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완벽한 진행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또한 전도회와 다락방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창세기 강해



에서의 후예들

(36장 1 - 8절)

이종운 목사

에서처럼 하나님을 잊으려 하는 이는 하나님께서도 기억치 않으십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후 한번도 영적으로 장자권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며 야곱의 형입니다. 에서는 또한 뒷날 이스라엘의 형제국이 되는 에돔의 조상으로 창세기 36장에는 그의 후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을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한 언약(창 25:23)을 지키신 것입니다. 사실 에서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에돔 족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1. 반복된 에서의 족보

에서의 족보는 36장 1-8절과 9절 이하에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두 족보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아내가 셋이 있었습니다. 1-8절에는 에서의 아내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자녀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가 하면 9절 이하에서는 에서의 손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족보는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을 달리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서'가 '에돔'으로도 불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던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의 '아다', '바스맛', '오홀리바마'는 창세기 26장과 28장에 나오는 '바스맛' (26:4), '마할랏' (28:9), '유딧' (26:34)과 각각 동일한 인물인 것입니다.

에서가 손자를 보았을 때 타향살이로 결혼이 늦었던 야곱에게는 아직 손자가 없었습니다.

2. 에서와 야곱이 받은 복

에서는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에 비하면 야곱은 가난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도망하다시피 나왔으므로 양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번

영을 누리는 에서를 보며 야곱은 불평하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건치 못한 에서의 번영과 그가 세운 에돔국은 영적으로 쇠잔해 갔으며 오바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3. 에돔의 멸망 원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장자에게는 상속을 두 배나 받을 수 있는 물질적인 특권뿐 아니라 가족의 머리로 대제사장적 권위를 갖는 영적인 복이 주어집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계보에는 메시야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같은 영적 가치를 경홀히 여기고 팔족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창 25:32, 34). 성경은 그를 망령되다고 하고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히 12:16-17).

둘째, 에서는 감각적인 것에 탐닉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현실적인 것을 택합니다. 팔족으로 그의 배는 만족함을 얻었으나 장자권은 잃고 말았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감각적인 것을 좇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헷 족속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창 26:35).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을 경우 육신적인 것이 우리를 점령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 구조 속에서 구축된 가정, 사회, 민족, 국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셋째, 가족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버린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부모의 기대와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자녀들 이름에는 영적인 흔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알하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신의 이름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가족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에서의 무관심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은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물질적 복을 누린 에서를 경건치 못하다(히 12:6)고 표현했고, 야곱은 믿음의 사람(히 11:21)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생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라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했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기회가 있었지만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해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셨습니다(롬 9:13).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메시야를 만나지 못하면 일반 은총이 오히려 심판으로 될 것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환경을 개선하고 삶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에서는 소유가 너무 많아 동생과 함께 하기 어렵게 됨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36:6-7).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모든 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교훈을 에서의 가정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컬럼 ✦

"낮은 곳에 오신 주님처럼"

성탄일을 앞두고 우리 주님 나신 곳을 생각해 본다. 그곳은 영광의 보좌가 아닌 죄인의 복종이었다. 높고 귀한 궁궐이 아닌 천하고 멸시받는 말구유 위였다. 주님이 찾아가신 곳은 사망과 흑암의 권세로 뒤덮인 그늘진 땅이었고, 시궁창에 빠져 절망에 허덕이며 탄식하는 버림받은 이들이 있는 곳이었다.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저들을 복음전도자로 바꾸어 놓으셨다. 부정과 불의를 서슴없이 자행하던 죄인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셨고 쓸모없어 버림받았던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으며 물질과 명예욕에 포로되었던 이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셨고 거짓과 탐욕의 사람들을 진실과 자비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낮은 곳에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을 본받아 금년 성탄절은 소외된 이웃을 찾아보는 절기로 삼자.

■ 순례길에 만난 사람

고등부 최초 여지 회장 '하·영·인'

어느 누구도 소외감 느끼지 않는 모두의 고등부 만들터

우리 교회에선 처음으로 여학생 회장이 내년 고등부를 이끌게 된다. 지난 달 고등부 총회에서 남학생 후보와 나란히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종다수로 회장에 당선된 하영인 고등부 신입회장이 <순례자>가 만났다.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회색빛 스웨터를 입은 영인양은 겸손하면서도 또박또박 말문을 열었다. “현재 우리 고등부는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나 모임 장소 등 어려움이 많습니니다. 우선 회원들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잘 이해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402호실에서 모이는 고등부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대학부에 자리를 비워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새 예배당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느 부서나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영인양은 잘 알고 있었다.

“교회에서 임원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3 때 우리 교회에 처음 발디엿을 댄 이는 사람이 없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고등부 찬양대를 하면서 교회 활동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고 회원들도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소외를 느끼지 않는 고등부를 만들고 모든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려 합니다.”

처음 회장을 맡은 사람같지 않게 자신 있는 말이 이어진다.

“아직 내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다른 임원진을 구성하는데 참여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도움으로 임원진 구성은 완료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 공부에 지나칠 만큼의 신경을 써야하는 우리의 학교교육 현실이 생각나서 물어 보았다.

“교회 활동으로 다소 학교 공부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없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학교 생활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집이 학교에서 멀지 않아 걸어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답 넘어가면 3분도 채 안걸릴 것 같지만...) 남다른 장점도 있구요.”

의사이신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는 영인양의 장래 희망은 의사나 선생님이 되어 가르치는 은사를 잘 발휘해 보는 것이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과 지내기 위해 찬양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단다.

하영인 고등부 신입회장은 헌금위원, 다락방장으로 봉사하시는 하인선, 남태순 두 분 집사님의 맏딸이자 두 동생의 언니, 누나이다.



■ 곡 해설 - 성탄축하 찬양예배에 앞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헨델(George Friedrich Handel, 1686 ~ 1759)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1741년 더블린에서 작곡된 것이다.

그 당시 빚더미에 눌려 낙담하고 있었던 57세의 헨델에게 사태가 호전될 기미는 희박했다. 그러던 어느날 무명 시인인 친구 제너스(C. Janners)가 성경을 발췌하여 엮은 <종교적 오라토리오(A Sacred Oratorio)> 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무심코 책장을 넘기던 헨델의 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라는 대목이 들어왔다. 왜냐하면 그 역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이었다.

헨델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 일기 시작했다. 그 원고의 말들이 그의 영혼에 메아리쳤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헨델은 그로부터 연주 시간 두 시간이 훨씬 넘는 대곡을 24일이라는 짧은 시일동안 완성한다. 때로는 음식이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어떤 때는 벌떡 일어나 뛰면서 손을 흔들며 “할렐루야!” 라고 외치곤 하였다.

1742년 4월 13일, 더블린에서 자신의 지휘로 초연하면서 헨델은 “나는 내 앞에 온 천국이 다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도 보았다” 라고 하였다.

총 53곡으로 된 <메시아>는 3부로 구성 되어 있다.

제 1부는 <예언과 탄생>으로 이사야, 학개, 말라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스가랴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밝고 온화한 기분이 전체를 지배하며 아름다운 아리아들과 대위법적 기법으로 씌어진 환희의 대합창곡이 헨델 음악의 묘미를 보여준다.

요한복음, 이사야, 시편, 예레미야 애가, 히브리서, 로마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수난과 속죄>를 다룬 제 2부는 1부와는 대조적으로 극적인 긴장감과 종교적 감동을 주는 부분이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하는 ‘어린양을 보라’ 로 시작되어 ‘할렐루야’ 로 하나님 찬미의 절정을 이룬다.

<부활과 영생>의 제 3부는 욥기, 고린도 전서, 로마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생각케 하는 조용한 흐름으로부터 확고한 신념을 표현하는 명징한 분위기로 상승되다가, 푸가(Fuga)풍의 웅대한 ‘아멘 코러스’ 로 장엄한 끝을 맺는다.

<메시아>는 예수님의 일생을 단순히 서사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 곡은 교회음악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의 음악으로서 부활절과 성탄절 때마다 감동을 주며 울려 퍼진다.

- 곡 해설 / 박정선(할렐루야찬양대 지휘) -

■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 - 루디아 2전도회

“손으로 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말씀이 일점 일획도 틀림없이 기록되어 우리 손에 책으로 쥐여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을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을 ‘손으로 쓴 성경’에 담았다.

루디아 제 2전도회 회원들은 올해 초에 성경을 손으로 써 보기로 작정하였다. 목표는 바울서신이었는데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대부분 회원이 바울서신 뿐 아니라 히브리서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성경 쓰기를 완성했다. 갓난 아기를 업고 쓴 회원,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토막 시간을 이용하여 적어온 회원, 영문과 그리다시피 한(?) 헬라어까지 곁들여 말씀 사랑을 표현한 회원... 읽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과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소감이었다. 또 설교말씀을 전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게 된 것 등 많은 유익도 있었다.

말씀을 손으로 써 보니 새로운 성취감이 생기기도 했지만 정말 큰 발견은 말씀은 정말 사랑할 만한 것이라는 것과, 그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는 심령도 가지게 되었다고.

손으로 쓴 성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귀한 유산으로 삼겠다고 회원들은 뿌듯해 했고 내년에는 모세 오경에도 도전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 소식

스데반회 새 간사장에 성준경 집사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데반회는 지난 9일 총회를 열었다. 예결산 심의 후 성준경 집사를 간사장으로 임명하고 새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회원의 가족들이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100교회 운동' 새해에도 계속

우리 교회는 교회설립 3주년을 기해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는 '100교회 운동'을 펴기로 하고 1월부터 남선교회, 여전도회, 다락방, 교회학교, 찬양대별로 106개 농어촌 교회와 결연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왔다. '100교회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되며 올해에 결연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새롭게 이 일에 참여할 성도들을 위해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박종상 전도사)



▲ 지난 주일 1996년도 서리집사와 교구일꾼 임명식이 있었다. 임명받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것을 다짐하며 서약하였다.

학원선교회

논현국교생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우리 교회 학원선교회에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해 대안을 협의하던 중 교회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실천해 가기로 하였다. 그 첫 사업으로 12일(화) 논현국민학교 4, 5, 6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김용진 박사(사랑의 연수원)가 청소년 문제의 실상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기로 하였다.

고등부 '아이노스의 밤'

고등부에서는 30일(토) 오후 3시에 '아이노스의 밤'을 열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시와 음악 등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사는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맞으며 주변의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고등부가 해마다 가지는 행사이다.

★ 대강절 단상 ②

'광야의 소리' 듣기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과 사역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썩여 불에 던지우리라 (누가복음 3장 3-9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 자체가 심판인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요한의 소리에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실현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나아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잘못된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란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고 신앙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 교우 동정 ■

- * 오광한 집사(3교구)는 두진종합건설(주) 이사로 승진.
- * 김영준 집사(7교구)는 한국유리(주) 이사로 승진.
- * 박태희 집사(7교구)는 연변 국립대 중의사 자격시험에 합격.
- * 최용걸 집사(12교구)는 9일(토) 중구 남창동으로 '최용걸 세무회계 사무소'를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림. ☎ 771 - 8551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임명받는 일꾼들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도록
2. 주님께서 오신 의미를 묵상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 연말 연시 행사들이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센터가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5.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